

불순종한 요나와 참복음과 참전도, 참선교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

-복음으로 여는 요나서-

요나 1:1-3, 누가복음 11:29-32

정윤돈 목사님

* **욥1:1-3** 여호와와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옴바스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 **눅11:29-32**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같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수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헌신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절대불가능한 영육 간의 그러한 관계와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를 뛰어넘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천명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후대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 지난 한 주간도 고통하고 아파하며 여러 가지 갈등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날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를 주신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며,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미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언약의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 성취된 것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무리에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살아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곧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서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구약에서 물고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생각해보면 불가능해 보인다. 큰 고래라 할지라도 인간을 삼키는 구조가 아니며, 그 안에서 산소를 공급받아 3일을 버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과거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에서 큰 배가 전복되었을 때 바다에 형성된 에어포켓(공기층) 덕분에 사람들이 생존했던 장면이나, 필리핀에서 작은 배가 뒤집혔을 때 빈 공간의 공기로 이들을 살아남았던 실제 사건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어쩌면 멸종된 거대한 포유동물이거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머금은 특별한 생물이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으로 요나를 그 뱃속에서 생존하게 하셨다는 점이다.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서 기절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평강히 복음적인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3일, 24시간 내내 그 안에서 계속 기도하게 하신 것이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상황을 더욱 같다고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창세인들이 기도가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극심한 상황으로 몰아가실 것이다. 평강히 힘든 일을 주시면 저절로 기도가 될 것이니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미리 기도하라는 것이다. 미리 앞당겨서 기도하면 쓸데없는 고난을 겪지 않고 계속 축복만 받게 된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인물이 바로 요엘, 다니엘, 다윗이다. 요셉과 다니엘은 노예와 포로로 끌려갔어도 갈등하거나 힘들어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랍넛시절부터 평소에 정시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했 역시 양을 치는 목동시절부터 항상 기도와 찬양하는 것을 누렸다. 이렇게 평강시에 기도를 누리는 랍넛트들이 받는 축복은 완전히 다르다. 나 역시 하나님 앞에 꾸준한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구나,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구나"하는 것을 참 많이 느꼈다. 세상 사람들이 위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형상 이러한 응답을 경험하게 하신다. 요나서를 통해 깨닫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절대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이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딱 붙잡고있으면 절대 도망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다 된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주거나 질병을 허락하시더라도 끝까지 기도하게 만드신다. 우리는 흔히 문제, 고통, 경제적 어려움, 자녀문제 등을 없애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없애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네 기도를 듣고 싶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성경적이고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와는 전혀 다르다.

이번에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나 스스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설교제목부터 내가 은혜를 받은 내용을 담아 정하게 되었다. 요나서를 보니 "진짜 복음이 바로 이것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구나"를 깨달았다. 요나는 성격도 나쁘고, 말쑥도 듣지 않으며, 불신앙으로 도망 다니고, 전도와 선교도 전혀 모르는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그런 요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어 끝까지 니느웨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를 붙잡아 사용하셨다.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칼빈과 루터 신학의 핵심인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굳게 믿기 바란다. 어제 오랜만에 한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고, '정신인'이라는 친구가 며칠 전 하나님 품으로 떠났다는 것이다. 유가족과 통화하며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녀들이 모두 훌륭하게 잘 성장했다고 한다. 선일이는 마지막 3년 동안 암투병을 했는데, 그 기간에 온 가족이 기도를 참 많이 했다고 한다. 특히 사랑하는 딸이 직장을 5개월이나 쉬면서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고, 가족들과 넘치는 사랑을 나누다가 하나님 품으로 평안하게 부르심을 받았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아,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누구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부터 생사화복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전히 주관하신다.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중요한 전환점마다 정작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은혜뿐이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굳게 붙잡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온전히 믿기를 바란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굳게 붙들고 계십니까?"이다.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참사랑교회를 세우셨고, 나 때문에 부모님을 주셨으며, 나 때문에 교제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종회와 협회도 주셨으며,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주셨다. 내가 이 땅에 어찌나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지 결코 부록같은 존재가 아님을 굳게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왕이나 왕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황제마저 살릴 '영적 황제'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언약과 자부심, 자강심을 가져야 한다. 세상의 갑부나 왕족과 비교할 수 없는 우주만물을 순식간에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 바란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완벽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그 길을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참사랑교회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이상해진다. 세상에 70억, 80억의 수많은 인구가 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나를 중심으로 자기를 움직이신다"는 생각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교만이 아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자기에게 속지 않고, 어떠한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소 부족하고 넘어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나의 본래 성향은 그렇지 않다. 매사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며, 이른바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대장'처럼 철저하고 완벽하게 행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번에 요나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아, 정말로 우리가 하는 것이 전혀 아니구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우리는 요나처럼 참으로 부족하고, 혹하면 불신앙에 빠지며, 성격도 모나고 연약하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루터와 칼빈의 신학이며, 우리 믿음의 위대한 유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핵심이다. 성경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교과서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믿음의 굳건한 기준이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 두신 사람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 에 히로시마에 가서 그 시의원을 만나자마자 앞으로의 전도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졌다. "아, 한국에서 우리 동생과 함께 국회의원을 데리고 와서 저 시의원과 연결하여 문화공연장을 빌리고 K-pop 공연도 하며 선교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이 되는 응답이다. 이 거대한 일들을 과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인가. 결코 아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불신앙에 빠지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남과 상황을 미리 완벽하게 예비해 두고 계심을 굳게 믿기 바란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 풍파도 예비해 두셨고 큰 물고기도 예비해 두셨다. 요나가 옴바스로 내려가 배 밑창으로 숨어들었을 때,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도망가기 딱 좋은 배가 한 척 있었다. 우리는 종종 돈을 쓰면서까지 나쁜 짓을 하고 불신앙의 엉뚱한 길로 간다. 그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다. 돈을 써가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다. 당시 다시스로 가는 배는 엄청나게 비쌌다. 그 큰돈을 들여서라도 도망을 친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는 돈을 아끼워치지만 정작 죄를 짓고 중독에 빠지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는 카드를 콕콕 긁으며 돈을 아주 잘 쓴다. 하나님의 일에는 인색한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심을 믿기 바란다. 배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네비럼(우상숭배)의 풍습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정확히 뽑혔다. 사람들이 "네가 대체 누구기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느냐?"라고 묻자, 요나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런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자복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훗날 요나서 2장을 보면 그가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마침내 밖으로 나오게 된다. 요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참된 복음과 진리, 그리고 선교가 무엇인지 평강한 영적 비밀을 알려 준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영적인 원리를 깊이 깨달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서론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이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한다. 우리는 마땅히 성령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악령의 인도를 받을 때가 많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음란하고 나쁜 길로 빠지며 불신앙에 사로잡힌다. 평화와 사랑을 구하기보다 늘 다투고 분열하는 길로 간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실존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자녀요, 나의 선

지자라"고 칭해 주신다. 비록 성령충만하지 못할지라도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 성령충만함조차도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격도 모나고 도망치기 바빴던 부족한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성경본문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아밋대의 아들 요나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밋대'라는 이름의 뜻은 '신실함', '진실함', 곧 '믿음이 굳다'라는 뜻이다. 우리가 후대를 위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은 이토록 중요하다. 비록 아밋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 몰라도 그 신실한 기도의 배경 덕분에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끝까지 사용하신 것이다. 우리 역시 믿음의 후대들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고 기도하는 부모세대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요나의 고향은 갈릴리 지방 '가드해벨'이었다. 가드해벨은 훗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신 나사렛과 아주 가까운 곳이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탄생지가 되었듯, 성경의 이러한 지리적 배경들은 모두 우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결국 요나라는 인물과 그의 여정 역시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인 것이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라고 부르셨다. 여기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즉, 구약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처럼, 신약의 베드로 역시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였던 것이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 혹은 '작은 돌'을 의미하는데, 이 굳건한 신앙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생각할 때, 이 모든 영적인 이름과 족보, 지리적 배경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철저히 상징하고 있음을 깨닫을 수 있다.

1. 요나서의 전체 내용과 영적 의미

요나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장마다 요나의 여정을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비록 짧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다.

1) 요나서 1장 : 불순종과 도망 하나님은 요나에게 앗수르의 수도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행을 꾸짖으라고 명령하신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려 한다. 니느웨가 있는 곳과 정반대인 스페인 쪽으로, 당시 세계의 끝이라 여겨졌던 곳까지 도망가려 했던 것이다. 우리 역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낫을 피해 도망치려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어둠을 가든 우리를 감찰하신다. 배를 타고 도망치던 요나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제비뽑기를 통해 결국 바다에 던져진다. 요나가 배 밑창으로 숨고 바다 깊은 곳으로 떨어졌듯,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은 계속해서 영적 밀바다, 즉 감잡힌 혼돈과 흑암으로 우리를 끌어내린다. 바다에 빠진 요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된다. 이 부분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진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2) 요나서 2장 : 극한의 고난 속에서의 기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다. 요나서 2장 2절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라고 고백한다. '스올'은 지옥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이성 문제 등 스올과 같은 극심한 고난에 빠질 때를 허락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콜링, 부르심이다. 평안할 때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요나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부로소 감사하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려야 나의 사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은2:9)"라고 고백한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부르짖기 전에, 평안할 때 미리 기도로 응답을 앞당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고난받기 전, 스올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에도 감사하길 바란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축복한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길 바란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3) 요나서 3장 : 요나의 미지못한 순종과 니느웨의 회개 하나님은 2장에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하여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다. 그 이후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신다.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만 그의 전도는 아주 불성실했다. 3일 길을 걸어야 할 만큼 거대한 성읍이었지만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대중 다마에 퍼쳤다.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은3:4)"고 짧게 심판만을 경고했다. 속으로는 이방 민족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의 없이 전도캠프를 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성실한 외침을 듣고 니느웨 왕부터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4) 요나서 4장 :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요나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보고 도리어 하나님께 매우 화를 낸다. 원수같은 민족이 구원받은 것을 보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은4:3)"고 불평한다. 하나님은 뜨거운 태양 아래 자라난 박진권을 통해 하나님의 공로를 가르치신다. 하루 만에 자랐던 사든 박진클도 그리 아끼거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영혼이 있는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다. 요나는 끝내 대답 없이 요나서는 마무리된다. 요나는 진정 회개하지 않았을까. 놀랍게도 2014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IS가 이라크 모술(고대 니느웨)에 있던 요나의 기념 모스크를 폭파했다. 그런데 그 파괴된 전체 지하를 발굴하던 중, 쉼기문자로 기록된 당시 왕의 글자와 함께 실제 요나의 무덤 유적이 발견되었다. 이는 요나가 툄틀거리고 불순종하는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원수의 땅 니느웨에 남아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불신앙과 연약함까지도 덮으시고 끝까지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2. 니느웨로 가는 길과 다시스로 가는 길

1) 다시스로 가는 길 : 불순종과 타락의 길 다시스는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의 정반대 쪽이다. 다시스로 가는 것은 창세기 3장으로 되돌아가는 불순종의 길을 의미한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강단메시지,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 계속해서 창세기 3장의 불순종과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항상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본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다시스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뜻과 생각대로 선택한 인간적인 길이다. 이 길은 성경에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전통과 자기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비복음적인 길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성격, 자신의 민족, 자신의 전통을 더 앞세웠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중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두 번째로, 다시스로 가는 길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길을 의미한다. 곧 무속, 저술, 우상숭배의 길이다. 실제로 무당이나 우상숭배에 깊이 빠진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성격이 매우 안 좋고 욕하는 기질이 있다. 귀신들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처음 보는데도 함부로 반말을 짹짹 내뱉는 등 거친 모습을 보인다.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씀한다. 흑암이 마음에 쌓이면 도무지 평안할 수가 없다. 무속과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영혼은 흑암, 혼돈, 공허에 갇혀 있다. 성경의 상태가 결코 아니다. 이것이 바로 네피림의 모습이며, 안타깝게도 전 세계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참된 행방이 없고 영혼이 공허하거나 마약이나 다른 중독에 빠지며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 다시스로 가는 길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쌓은 길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직 자신의 성공, 교만, 돈, 자기 이익, 명예, 권력, 지식을 위해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다.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역시 '니므롯(창10:8, 11, 12)'이라는 사람이 세웠다. 니므롯은 아주 교만하고 최고의 힘을 가진 최초의 무력적이고 권위적인 인물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도성을 세우려 하지 않고 자꾸만 나의 바벨탑,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의 바벨탑을 박살내기를 축원한다. 내 바벨탑을 쌓으면 행복하니? 결코 아니다.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나 인생의 답이 없다. 틀린 것과 망할 것들만 가득할 뿐이다. 최근 한국의 지방자치 선거결과를 보면 참으로 오묘하다. 여당과 야당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절묘한 균형을 맞췄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이 나라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으로 나뉘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며 갱신해야 한다. K-pop과 K-컬처를 넘어, 궁극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목표요 소원임을 믿기 바란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과거 내가 다녔던 서울신학대학원은 '동양선교회'라는 미국의 선교단체가 일본에 본부를 세우고 한국 유학생들을 교육하여 파송하면서 세워진 교단이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물어보니, 그 일본 선교회를 뿌리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으로 선교사를 한 명도 파송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데리고 갔던 소기도 선교사가 30여 년 전 교단의 최초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어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으로 선교를 말하면서조차 실제로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이웃 나라를 미워하고 욕한다. 참된 선교적 차원의 마인드가 아니면 이런 민족적 감정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 비록 과거의 역사 때문에 그들이 싫고 원수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감정을 뛰어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은 그 모든 영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선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다.

2) 니느웨로 가는 길 : 복음과 순종의 길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니느웨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고도 요나는 나옴자마 이 상한 행동을 한다. 요나서 2장에서는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기도했지만 3장에 가서는 성의없이 대중 전도한다. 그러고는 4장에서 햇빛을 가져주던 박진권이 사라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를 낸다. 은혜를 체험하고도 전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것이 고난을 피한 인간의 알뜰한 모습이다.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하다가 조금 살 만해지면 또 다시 딴 짓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 바란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니느웨로 가는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째, 사도행전 1장 1절의 길이다. 즉 오직 그리스도가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셨다. 그리하여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복음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이 길을 걸어야 한다. 둘째, 니느웨로 가는 길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길이다. 역지로나라도 요나가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대한 영적인 정복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237개 나라 치유사밧의 응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도 요나처럼 비록 역지로 갈지라도 현장에 가지만 하면 정복의 응답을 받게 된다.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숨겨두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흠어진 자, 파수꾼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홍콩캠프나 일본 히로시마캠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히로시마에 새로 생긴 거대한 경제문제로 무너져가는 유림과 미국이다. 절로나는 선진국 같지만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영적으로 깊이 병들어 망해가고 있다. 우리는 니느웨처럼 전쟁을 일으키고 멸망을 향해 가는 절대불가능한 현장으로 가야 한다. 말을 유창하게 많이 할 필요도 없다. 오직 바른 복음을 조금만 전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이번 캠프에 가도 나는 응답을 못 받을 거야"라는 불신앙의 확신을 품고 간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기대하며 해의캠프에 임하는지,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며 방관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응답을 받기를 축원한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악한 사람들도 회개만하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은 비록 요나와 같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절대불가능한 현장에서도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의 삶의 현장과 237개 나라, 5천 종족의 빈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참사랑교회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요나서를 통해서 소중한 하나님의 참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알려주실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려 할지라도, 원래 언약하고 부촉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우리를 값지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저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네피림의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세상의 현장에서 오직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절대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